멍냥뉴스
동네방네

구독자 무료 가이드 · 3권

강아지와 떠나는 여행 안전 가이드

자동차, 기차, 비행기, 숙소와 관광지까지. 우리 강아지와 함께 이동할 때 확인할 규정과 안전 수칙을 한 권에 담았어요. 인쇄해서 쓰는 짐 목록과 여행 비상 카드도 함께 넣었어요.

멍냥뉴스 동네방네 · dogdo209.com · 2026년판

시작하며

이 가이드 활용법

이 책은 어디로 가라고 권하는 여행 책자가 아니에요. 동반 가능한 숙소와 명소는 해마다 바뀌니까요. 오래 남는 건 확인하는 법이에요. 교통수단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 안과 물가에서 무엇을 조심할지, 길을 잃었을 때 무엇부터 할지를 담았어요.

떠나기 전

1 출발 전 10분 점검

이동할 때

2 자동차

3 기차·버스·지하철

4 비행기

5 숙소·식당·관광지

여행지에서

6 더운 날과 차 안

7 추운 날과 겨울 여행

8 물놀이

9 잃어버렸을 때

10 여행 중 먹고 마시기

11 해외로 간다면

+ 인쇄해서 쓰는 목록과 카드

세 가지 원칙

1. **규정은 떠나기 전에, 공식 안내로.** 같은 KTX라도 운영사마다, 같은 비행기라도 항공사마다 기준이 달라요. 이 책의 수치는 출발 전에 공식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써 주세요.
2. **집에서 먼저 연습하기.** 여행에서 강아지가 힘들어하는 이유 대부분은 이동장, 하네스, 차가 처음이라서예요. 몇 주 전부터 짧게, 간식과 함께 익히게 해 주세요.
3. **장비는 보호자의 눈을 돕는 도구일 뿐이에요.** 냉감 매트, 구명조끼, GPS가 있어도 차 안이나 물가, 더운 곳에 강아지를 혼자 두면 안전하지 않아요.

> **꼭 읽어 주세요**
>
> 이 가이드는 보호자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수의사의 진단·치료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아요. 저희는 제품을 직접 시험하지 않고 특정 브랜드나 업체를 추천하거나 협찬받지 않아요. 교통·숙소·검역 규정은 자주 바뀌니 출발 전에 해당 기관과 업체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정보의 출처

각 장은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관광공사 등)와 교통 운영사의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더위·물놀이 안전은 미국수의사회(AVMA)와 미국켄넬클럽(AKC)의 보호자 안내를 함께 참고했어요. 자료 목록은 마지막 쪽에 있어요.

최신 소식 받기

지원금, 법·제도 변경, 안전 경보, 지역 반려견 행사처럼 바뀌는 소식은 **dogdo209.com**에 날짜와 출처를 밝혀 올려요. 1권 『강아지 관리 가이드북』, 2권 『들이기 전에 읽는 펫테크 가이드』도 함께 챙겨 보세요.

출발 전 10분 점검

여행 중 생기는 문제 대부분은 응급 상황이 아니에요. 집에 두고 온 접종 기록, 옛날 번호가 적힌 인식표, 그새 헐거워진 하네스 같은 것들이에요. 떠나기 일주일 전 10분이면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신원: 누가 찾아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나요?

- ☐ **동물등록 정보가 최신인가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 대상이에요. 이사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 **인식표를 달았나요?** 외출할 때는 보호자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다는 것이 법적 의무예요. 여행 중에는 연락이 잘 닿는 동행인 번호를 하나 더 적어 두면 좋아요.
- ☐ **최근 사진이 휴대폰에 있나요?** 옆모습 전신 한 장, 얼굴 정면 한 장, 털 무늬나 특징이 보이는 사진을 준비하세요. 잃어버렸을 때 공고와 전단에 바로 쓸 수 있어요.

서류: 꼭 챙길 것

- ☐ **광견병 등 예방접종 기록.** 기차·버스·항공에서 접종 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반려견 동반 음식점은 접종하지 않은 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요.
- ☐ **먹는 약과 용량 메모, 다니는 동물병원 연락처.**
- ☐ **여행지 근처 24시 동물병원 이름과 번호.** 뒤쪽 **여행 비상 카드**에 숙소마다 하나씩 적어 두세요.

종이 사본은 가방에, 사진은 휴대폰 앨범의 즐겨찾기에 넣어 두면 급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어요.

장비: 아직 몸에 맞나요?

- ☐ **하네스:** 모든 끈 아래로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가고, 뒤로 빠져나오지 못해야 해요.
- ☐ **목줄·리드줄:** 외출할 때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해요(3개월 미만을 안고 있을 때는 예외). 위반하면 과태료가 1차 20만 원부터 부과돼요.
- ☐ **이동장:** 지퍼·잠금장치가 멀쩡한지, 강아지가 안에서 일어서고 돌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 **GPS 트래커(쓴다면):** 충전, 요금제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멍냥 팁**
>
> 뒤쪽 **체형·장비 기록지**에 가슴둘레, 목둘레, 몸무게를 적어 두세요. 하네스, 구명조끼, 이동장을 새로 살 때 숫자가 바로 있어요. 이동장 무게 기준은 대부분 '강아지 + 이동장' 합계라서, 이동장 무게도 함께 적어 두면 편해요.

자동차

차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강아지는 운전을 방해하고, 급정거 때는 강아지 자신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제39조 제5항)은 운전자가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고정 방식 고르기

방식	이럴 때 좋아요	알아 둘 점
차량용 안전 하네스	대부분의 강아지, 특히 중·대형견과 고속도로 주행	산책용 하네스는 충돌 힘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고정한 이동장(켄넬)	좁은 공간에서 안정을 찾는 아이, 트렁크 공간이 있는 SUV	끈으로 묶지 않은 이동장은 급정거 때 미끄러지거나 튕겨 나가요.
카시트(부스터)	얌전한 소형견의 짧은 이동, 창밖을 보고 싶어 하는 아이	충돌 시험을 거친 제품이 드물어요. 보호보다는 자리 잡기에 가까워요.
안전벨트 연결 줄만	강아지를 뒷좌석에 머물게 할 때	반드시 하네스에 연결하세요. 목줄에 연결하면 급정거 때 목이 다쳐요.

바르게 설치하기

- ☐ **뒷좌석에 태우세요.** 조수석 에어백이 터지면 묶여 있어도 크게 다칠 수 있어요.
- ☐ **안전벨트나 차량 고정 고리에 연결하세요.** 헤드레스트 기둥은 고정점이 아니에요.
- ☐ **줄 길이는 짧게.** 앉고 엎드릴 수는 있되 앞좌석이나 발밑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해요.
- ☐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하지 마세요.** 날아오는 이물질과 급정거가 생각보다 위험해요.
- ☐ **이동장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끈으로 고정**하고, 주변에 무거운 짐을 풀어 두지 마세요.

익숙해지게 하기

1. 집에서 하네스를 짧게 몇 번 입혀 보고 간식을 줘요.
2. 시동을 끈 차에 함께 앉아 벨트를 채우고, 간식을 주고, 풀어 줘요. 여러 번 반복해요.
3. 동네 한 바퀴부터 시작해 조금씩 거리를 늘려요.

멀미와 쉬는 시간

- ☐ 멀미하는 아이는 출발 직전에 배불리 먹이지 말고, 몇 시간 전에 가볍게 먹여요.
- ☐ 장거리 이동이라면 **적어도 2시간마다** 쉬면서 물을 주고 배변할 시간을 줘요(농림축산식품부 권고).
- ☐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곳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요. 차 밖에서는 꼭 2m 이내 줄을 하세요.
- ☐ 매번 침을 흘리거나 토한다면 멀미일 수 있으니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기차·버스·지하철

대중교통은 대부분 '작은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동반을 허용해요. 무게는 보통 강아지와 이동장을 합친 기준이에요. 아래 표는 2026년 공개된 안내를 정리한 것이니, 표를 사기 전에 운영사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교통수단	이동장·무게	좌석·요금과 지킬 것
KTX·일반열차 (코레일)	강아지 + 이동장 10kg 이내, 이동장 약 45×30×25cm(세 변 합 100cm 안팎)	좌석 없이 무릎 위나 발밑에 두면 추가 요금이 없고, 옆자리가 필요하면 성인 요금으로 좌석을 따로 사요. 예방접종 확인을 요구할 수 있어요.
SRT	강아지 + 이동장 10kg 이하, 길이 60cm 이내 이동장(약 45×30×25cm 권장)	반려동물용 좌석을 따로 살 수 없어요. 발밑이나 무릎 위에 두고, 통로에서 꺼내면 안 돼요.
고속·시외버스	강아지 + 이동장 10kg 이하, 이동장 약 50×40×20cm 미만	운송사마다 달라요. 승차 전에 운송사와 기사에게 알리고, 옆자리가 필요하면 좌석을 따로 사요. 승차장과 차 안에서 꺼내면 안 돼요.
지하철 (서울 1~8호선 등)	수치 기준 없음. 작은 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밖에서 보이지 않게	냄새나 소리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은 피하세요.
시내버스	이동장에 넣은 작은 동물	차 안에서 꺼내 돌아다니게 하면 안 돼요. 지역·운송사별로 달라요.
택시	수치 기준 없음. 이동장에 넣으면 대부분 가능	기사 재량이라 탑승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반려동물 전용 택시 서비스도 있어요.

타기 전에 연습할 것

- [ ] **이동장 연습은 몇 주 전부터.** 이동장 문을 열어 집 안에 두고, 안에서 간식을 먹고 쉬는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처음부터 문을 닫고 들고 나가면 이동장을 싫어하게 돼요.
- [ ] **들고 걸어 보기.** 이동장을 든 채 집 주변을 5~10분 걸어 보세요. 흔들림에 익숙해지고, 보호자도 무게를 실감할 수 있어요.
- [ ] **배변은 타기 직전에.** 역이나 터미널 근처에서 짧게 산책해 배변을 마치고 타요. 이동장 바닥에는 배변 패드를 깔아 두세요.
- [ ] **이동장 밖에 이름과 연락처**를 붙여 두세요.

> **보조견은 달라요**
>
>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보조견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 숙소, 식당 출입을 거부할 수 없어요. 이 책의 이동장·무게 기준은 일반 반려견에 대한 것이에요.

> **이럴 때는 다음 기회로**
>
> 이동장 안에서 계속 짖거나 낑낑대고, 숨을 헐떡이며 침을 많이 흘린다면 아직 대중교통이 버거운 상태일 수 있어요. 무리해서 태우기보다 짧은 구간부터 다시 연습하세요.

비행기

제주도 여행처럼 국내선을 탈 때도 반려견은 미리 예약해야 해요. 항공기마다 실을 수 있는 반려동물 수가 정해져 있고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이에요. 기준은 항공사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니, 항공권을 살 때 반려동물도 함께 신청하세요.

기내 반입과 위탁(화물칸)

	기내 반입	위탁(화물칸)
무게 기준	강아지 + 이동장 합계. 대한항공·아시아나는 7kg, 저비용항공사는 7~10kg 사이로 항공사마다 달라요.	일부 항공사만 받아요. 받지 않는 저비용항공사도 많아요.
이동장	앞 좌석 밑에 들어가야 해요. 항공사마다 가로·세로·높이 제한이 있고, 부드러운 가방은 눌렀을 때 높이를 따로 보기도 해요.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새지 않는 단단한 켄넬. 밖에 이름과 비상 연락처를 적어요.
마리 수	보통 승객 1명당 1마리. 같은 이동장에 두 마리를 넣는 예외는 항공사 조건을 확인하세요.	

탑승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 **단두종(퍼그, 불도그, 시추 등 코가 짧은 견종):** 호흡 문제 때문에 화물칸 운송을 받지 않는 항공사가 많아요. 기내 반입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하세요.
- ☐ **맹견, 임신한 동물, 너무 어린 강아지**(생후 8주 이하 등)는 제한될 수 있어요.
- ☐ **건강 상태:** 심장·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노령견이라면 비행이 괜찮은지 수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준비 순서

1. **항공권 예약과 동시에 반려동물 신청.** 온라인으로 안 되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요.
2. **이동장 크기를 줄자로 재서** 항공사 기준과 비교해요. '기내용'이라고 팔리는 가방도 항공사마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3. **강아지 + 이동장 무게를 집에서 재 보세요.** 보호자가 강아지를 안고 체중계에 올라간 무게에서 보호자 몸무게를 빼면 돼요. 공항에서 초과하면 탈 수 없어요.
4. **이동장 적응은 몇 주 전부터.** 비행 중에는 이동장에서 꺼낼 수 없어요.
5. **공항에는 여유 있게.** 반려동물 동반 수속은 일반 수속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 **비행기를 타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
> 몸집이 커서 기내에 탈 수 없거나 화물칸이 걱정된다면, 자동차를 싣고 가는 배편이나 다른 이동 방법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선박의 반려동물 기준도 선사마다 다르니 예약할 때 확인하세요.

> **진정제는 수의사와 상의해서만**
>
> 비행 전 진정제는 호흡과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불안이 심하다면 미리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숙소·식당·관광지

'반려견 동반 가능'이라는 말은 곳마다 뜻이 달라요. 소형견만 되는 곳, 마리 수나 몸무게를 제한하는 곳, 객실은 되지만 식당과 수영장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예약 전에 질문 몇 개만 해 두면 현장에서 돌아서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숙소 예약 전에 물어볼 것

- [ ] **몸무게·견종·마리 수 제한**이 있나요? 대형견은 따로 물어보세요.
- [ ] **추가 요금과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 ] **객실 밖 공용 공간**(로비, 식당, 산책로)은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나요?
- [ ] **객실에 혼자 두어도 되나요?** 안 되는 곳이 많아요. 된다 해도 짖음이 걱정되면 이동장에 넣어 두세요.
- [ ] **가까운 24시 동물병원**을 알려 줄 수 있나요?

식당: 2026년 3월부터 달라진 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바뀌어 2026년 3월 1일부터 기준을 갖추고 신고한 음식점·카페·제과점은 개와 고양이의 동반 출입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식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구에 동반 출입 업소라는 표시가 있는 곳만 해당해요.

- [ ] 반려견이 보호자 곁을 벗어나 돌아다니면 안 돼요. 목줄을 짧게 잡거나 전용 의자·이동장에 둬요.
- [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 [ ] 반려견 식기는 업소에서 손님용과 따로 내줘요. 사람 음식을 나눠 주지 마세요.

국립공원과 공원

- [ ] **국립공원은 원칙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제한돼요.**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원 관리자가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물의 출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 ]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무장애 탐방로 일부), 계룡산(동학사 야영장), 가야산 세 곳에서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2026년 말까지 운영하고 이후 확대·축소를 결정할 예정이니, 방문 전 공단 누리집에서 운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 [ ] 도시공원, 해수욕장, 계곡은 지자체마다 규칙이 달라요. 입구 안내판과 지자체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 **여행지에서 지킬 펫티켓**
>
> - 목줄은 2m 이내, 배변 봉투는 넉넉히. 배설물은 바로 치워요.
> -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요.
> - 낯선 사람이나 개에게 다가갈 때는 보호자에게 먼저 물어요.

멍냥뉴스에서 더 보기

반려견 동반 여행지 193곳을 무게 제한부터 보여 주는 무료 앱 · dogdo209.com/app-royal-retreat-guide

더운 날과 차 안

강아지는 사람처럼 땀으로 열을 식히지 못하고 주로 헐떡여서 체온을 낮춰요. 코가 짧은 견종, 어린 강아지, 노령견, 비만이거나 심장·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이는 더 빨리 더위를 먹어요.

주차한 차에는 잠깐도 두지 마세요

미국수의사회(AVMA)에 따르면 주차한 차 안은 그늘에서도 10분이면 약 11°C, 30분이면 약 19°C가 올라가요. 바깥이 21°C인 날에도 30분 뒤 차 안은 40°C 안팎이 될 수 있어요. 창문을 조금 열어 두는 것으로는 거의 달라지지 않아요. 편의점에 들르는 '잠깐'도 마찬가지예요.

냉감 용품, 무엇이 다른가요?

종류	원리	알아 둘 점
젤 쿨매트	몸의 열을 흡수해요. 전기나 냉장이 필요 없어요.	보통 몇 시간 시원하고, 그 뒤엔 열을 식힐 시간이 필요해요. 들고 다니기 좋아요.
물 채운 매트	밀폐된 물층이 열을 빼앗아요.	구멍 나면 새요. 잘 씹는 아이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물망 해먹 침대	바닥에서 띄워 아래로 바람이 통해요.	뚫릴 곳이 없어 야외나 씹는 아이에게 좋아요.

냉감 매트는 이미 그늘지거나 냉방된 곳에서 편안함을 더해 주는 도구예요. 뜨거운 차 안, 직사광선, 한낮 산행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해요.

여름 여행 습관

- [ ] **산책은 이른 아침과 해 진 뒤에.** 손등을 아스팔트에 대고 몇 초를 못 버티면 발바닥도 데어요.
- [ ] **물은 생각보다 넉넉히,** 쉴 때마다 권해요.
- [ ] **강아지가 차에 있는 동안은 에어컨을 계속 켜 두세요.** 휴게소에서는 그늘에 주차하고 함께 내려요.
- [ ] **습한 날은 운동을 짧게.** 습도가 높으면 헐떡여도 열이 잘 식지 않아요.

열사병 징후: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심하고 거친 헐떡임 · 끈적한 침 · 새빨갛거나 창백한 잇몸 · 비틀거림, 멍함 · 구토, 쓰러짐.

이렇게 하세요: 그늘이나 냉방된 곳으로 옮기고, 몸을 시원한 물(얼음물 말고)로 적시고, 바람을 쐬어 줘요. 의식이 있으면 물을 조금씩 주고, 이동하면서 동물병원에 전화하세요.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장기가 손상됐을 수 있으니 진료를 꼭 받으세요.

추운 날과 겨울 여행

차가운 바닥과 외풍은 굳은 관절을 더 아프게 해요. 노령견, 관절이 약한 아이, 털이 짧은 견종과 초소형견, 어린 강아지가 추위를 가장 많이 타요. 이중모가 두꺼운 견종은 대개 따로 챙길 게 많지 않아요.

자가발열 매트와 전기 매트

	자가발열 매트·방석	전기 온열 매트
열원	반사층이 강아지 체온을 되돌려 줘요.	저전압 발열선
전선	없어서 씹는 아이에게도 안전해요.	씹히지 않게 정리해야 해요.
따뜻함	은은해요.	일정해요. 보통 온도 조절이 돼요.
이럴 때 좋아요	여행, 차박, 가벼운 추위	관절이 약한 노령견, 외풍 심한 숙소

전기 매트 안전 점검

- ☐ **KC 인증 표시**가 있는 반려동물 전용 제품을 쓰세요. 사람용 전기장판은 움직이기 힘든 아이에게 너무 뜨거울 수 있어요.
- ☐ **온도 조절이나 자동 꺼짐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 **강아지가 열을 피해 옮겨 갈 공간**을 남겨 두세요. 문 닫은 이동장 바닥 전체에 깔지 마세요. 오래 누워 있으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 ☐ 처음 며칠 밤은 헐떡이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는지 지켜봐요.

겨울 여행에서 조심할 것

- ☐ **겨울에도 주차한 차에 혼자 두지 마세요.** 시동을 끈 차는 금세 냉장고처럼 차가워져요.
- ☐ **염화칼슘을 뿌린 길을 걸은 뒤에는 발을 닦아 주세요.** 발바닥이 트고, 핥으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 ☐ **부동액은 달고 독성이 강해요.** 주차장이나 차고 바닥에 흘린 자국에 강아지가 입을 대지 않게 하세요.
- ☐ **털이 짧은 아이는 바깥에 오래 있을 때 옷을 입혀요.** 앞다리 겨드랑이가 쓸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 **자가발열 매트**는 가볍게 접혀서 차가운 숙소 바닥을 따뜻한 잠자리로 바꿔 줘요.

> **아침마다 뻣뻣하다면**
>
> 아침에 일어날 때 굼뜨거나 계단 앞에서 머뭇거린다면 따뜻한 잠자리가 편안함은 주지만, 원인은 수의사와 상의하세요. 통증은 치료할 수 있어요.

멍냥뉴스에서 더 읽기

강아지 냉감·온열 매트, 고를 때 확인할 6가지 · dogdo209.com/dog-cooling-heating-mat-guide
새끼 강아지 첫 겨울나기 · dogdo209.com/puppy-first-winter-care-guide

물놀이

수영을 잘하는 강아지도 차가운 물, 물살, 배가 지나간 뒤의 너울, 단순한 피로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배나 패들보드를 타거나 낯선 바다·강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입혀 주세요.

구명조끼 사이즈 고르기

- ☐ **가슴둘레를 재세요.** 앞다리 바로 뒤 가장 넓은 곳이에요. 몸무게가 아니라 이 숫자로 제조사 사이즈표를 보세요. 몸무게가 같아도 필요한 사이즈는 크게 다를 수 있어요.
- ☐ **물 밖에서 먼저 입혀 보세요.** 모든 끈 아래로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가고, 움직여도 조끼가 가운데에 있어야 해요. 버클을 풀지 않고 머리 위로 벗겨지면 너무 헐거운 거예요.
- ☐ **잔잔하고 얕은 물에서 시험해 보세요.** 머리가 자연스럽게 물 위에 있고, 조끼가 목 쪽으로 밀려 올라가지 않아야 해요.

있으면 좋은 기능

- ☐ **등 위 손잡이:** 지친 강아지를 물에서 바로 들어 올릴 수 있어요.
- ☐ **밝은 색과 반사띠:** 보호자와 배에서 잘 보여요.
- ☐ **턱 아래 부력재:** 머리를 물 위로 받쳐 줘요.
- ☐ **앞다리 뒤 배 끈과 빠르게 풀리는 버클,** 선착장에서 쓸 리드줄 고리.

물 자체도 확인하세요

늦여름 강과 호수에는 녹조가 생길 수 있어요. 물이 진한 녹색 페인트처럼 보이거나 수면에 찌꺼기가 떠 있다면, 강아지가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심하게 아플 수 있어요. 강아지는 그 물을 헤엄치며 마시고, 털에 묻은 것을 핥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위험해요.

- ☐ 물가 안내판과 지자체 누리집에서 **조류경보**가 내려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 애매하면 들어가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 ☐ 들어갔다면 바로 깨끗한 물로 헹구고 털을 핥지 못하게 하세요.
- ☐ 물놀이 뒤 구토, 침 흘림, 기운 없음, 비틀거림, 떨림, 숨쉬기 힘들어함이 보이면 응급 상황이에요. 바로 동물병원에 가세요.

> **바다와 계곡**
>
> 이안류(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물살)와 빠른 계곡물은 어떤 강아지도 이기기 어려워요. 흐르는 물에서는 강아지를 가까이 두고, 허우적대는 강아지를 구하러 맨몸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해수욕장과 계곡은 반려견 출입 규칙이 지자체마다 달라요.

잃어버렸을 때

강아지는 낯선 곳에서 가장 잘 달아나요. 휴게소, 처음 간 캠핑장, 친척 집 마당 같은 곳이에요. 예방은 문을 열 때마다 하네스와 줄을 단단히 하는 것이고, 찾을 수 있느냐는 동물등록 정보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GPS 트래커와 블루투스 태그

	통신형 GPS 트래커	블루투스 분실 방지 태그
찾는 방식	휴대폰 통신망으로 자기 위치를 직접 보내요.	근처 휴대폰이 신호를 잡아야 위치가 떠요.
실시간 추적	돼요. 정해 둔 구역을 벗어나면 알림이 와요.	안 돼요. 들판, 산, 사람 없는 곳에서는 위치가 멈춰요.
유지비	보통 월·연 요금제가 있어요.	대개 없어요.
약점	통신이 터져야 하고 충전이 필요해요.	움직이는 동물을 추적하도록 만든 물건이 아니에요.

트래커를 사기 전에 자주 가는 곳의 통신 가능 지역, 배터리 시간, 요금제까지 더한 1년 비용을 확인하세요.

처음 1시간

1. **주변부터 차분히 찾으세요.** 많은 강아지가 가까운 곳에 숨어 있어요. 평소 목소리로 부르고, 아는 간식 봉지나 장난감 소리를 내보세요.
2. **잃어버린 자리에 보호자 냄새가 밴 옷이나 강아지 담요를 두세요**(안전한 곳이라면).
3. **분실 신고를 하세요.**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이나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4. **그 지역 동물보호센터 공고를 확인하세요.** 구조된 동물은 animal.go.kr에 공고가 올라와요.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갈 수 있으니 매일 확인하세요. 전화 설명만으로는 놓치기 쉬우니 직접 가 보는 게 좋아요.
5. **사진, 잃어버린 장소와 시간을 적어** 지역 커뮤니티와 반려동물 실종 게시판에 올려요.
6. **숙소, 휴게소, 캠핑장,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연락처를 남기세요.

> **쫓아가지 마세요**
>
> 겁먹은 강아지는 보호자에게서도 달아날 수 있어요. 쫓아가기보다 가까이에 앉거나 엎드리고, 몸을 옆으로 돌린 채 간식을 던져 주는 편이 더 잘 통해요.

멍냥뉴스에서 더 읽기

강아지 GPS 트래커 고르는 법 · dogdo209.com/dog-gps-tracker-buying-guide
강아지 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 얼마? · dogdo209.com/dog-registration-law-guide

여행 중 먹고 마시기

여행하는 날은 평소 생활 리듬이 흔들려요. 먹던 사료는 그대로, 물은 쉽게 마실 수 있게, 식사 시간은 이동 일정에 맞춰 계획하세요.

먹이

- [ ] **평소 사료를 밀폐 용기에 담고 이틀 치를 더 챙기세요.** 여행지에서 갑자기 사료를 바꾸면 배탈이 나기 쉬워요.
- [ ] **멀미하는 아이는** 출발 직전에 배불리 먹이지 말고, 몇 시간 전에 가볍게 먹여요.
- [ ] **급하게 먹는 아이:** 느리게 먹는 그릇, 핥는 매트, 사료 흩뿌려 주기로 속도를 늦춰요. 가슴이 깊은 대형견은 위가 꼬이는 위험(위확장·염전)이 높아서, 식사 직후 격한 운동은 피하라고 권하는 수의사가 많아요.
- [ ] **간식도 하루 먹는 양에 포함돼요.** 여행 중 간식은 금방 늘어나요. 하루 사료 일부를 보상용으로 덜어 쓰세요.
- [ ] **휴게소·식당 음식은 나눠 주지 마세요.** 양념, 뼈, 꼬치, 양파·마늘이 든 음식은 위험해요.

> **위확장·염전(GDV)은 응급이에요**
> 배가 부풀거나 단단해지고, 토하려 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안절부절못하며 침을 흘린다면(특히 대형견) 바로 응급 동물병원에 가세요.

물

- [ ] **첫날은 집 물을 챙기세요.** 맛이 다른 물을 안 마시는 아이도 있어요.
- [ ] **접이식 그릇이나 그릇 달린 휴대용 물병**이 있으면 쉬는 시간이 짧아져요.
- [ ] **쉴 때마다, 더운 날엔 더 자주** 물을 권해요.
- [ ] **웅덩이, 연못, 고인 계곡물은 마시지 않게 하세요.** 녹조, 오염된 빗물, 기생충이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도 물을 잘 안 마신다면

흐르는 물을 더 잘 마시는 강아지가 많아요. 급수기를 쓴다면 플라스틱보다 스테인리스가 관리하기 쉽고, 매주 헹구고 필터를 제때 바꿔야 해요. 방치한 급수기는 물때가 끼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 **멍냥 팁**
> 여행 가방에 '하루 한 봉지'씩 사료를 나눠 담아 가면 양을 맞추기 쉽고, 남은 봉지 수로 일정이 한눈에 보여요. 봉지에 날짜를 적어 두세요.

해외로 간다면

해외여행은 국내 여행과 준비 기간부터 달라요. 나라마다 들어오는 동물에 대한 검역 조건이 다르고, 광견병 항체 검사가 필요한 나라는 반년 넘게 걸리기도 해요. 항공권보다 검역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 순서 (큰 흐름)

1. **가려는 나라의 검역 조건 확인.** 그 나라 대사관이나 동물검역기관 누리집,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내를 봐요. 조건은 자주 바뀌니 출발이 가까워지면 다시 확인하세요.
2. **마이크로칩(내장형) 동물등록.** 많은 나라가 국제 표준 마이크로칩을 요구해요. 외장형 태그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3. **광견병 예방접종.** 보통 마이크로칩을 넣은 뒤 또는 같은 날 접종해야 인정돼요.
4. **광견병 항체가 검사(필요한 나라만).** 지정 검사기관에서 검사하고, 나라에 따라 채혈일부터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해요.
5. **도착국 사전 신고(필요한 나라만).**
6. **출국 직전 건강증명서와 검역증명서.** 동물병원에서 건강증명서를 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항·지역 사무소에서 검역증명서를 받아요.

예시: 일본에 가려면 (2024년 9월 기준 정리)

시점	할 일
출국 약 7개월 전	마이크로칩, 광견병 1차 접종(생후 91일 이후)
출국 약 6개월 전	광견병 2차 접종(1차 뒤 30일 이상), 채혈해 항체가 검사(0.5 IU/ml 이상), 채혈일부터 180일 이상 대기
출국 40일 전까지	도착 공항·항구 동물검역소에 사전 신고
출국 10일 이내	건강증명서 발급, 검역증명서 발급(출국 당일도 가능)

일본 조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실제 준비는 반드시 일본 동물검역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신 안내를 따르세요.

돌아올 때

- [ ] 광견병이 없는 나라에서 오는 경우가 아니면, 귀국 검역 때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가 필요해요. 출국 전에 국내에서 미리 받아두면 편해요.
- [ ] 조건을 못 갖추면 공항 계류장에서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할 수 있어요.

> **검역증명서 예약**
>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 반려동물 검역 예약 시스템으로 미리 예약하면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 인천공항 사무소는 주말에도 운영하지만, 붐비는 날은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인쇄해서 쓰세요

여행 짐 목록

여행마다 한 장씩 인쇄해서, 가방에 넣을 때마다 표시하세요.

서류

- ☐ 광견병 등 예방접종 기록
- ☐ 동물등록번호 메모
- ☐ 먹는 약 목록과 용량
- ☐ 다니는 병원·24시 병원 연락처
- ☐ 최근 사진(휴대폰)
- ☐ (해외) 건강증명서·검역증명서

신원과 산책

- ☐ 인식표 달린 목줄(연락처 확인)
- ☐ 하네스(사이즈 확인)
- ☐ 2m 이내 리드줄 + 여분 하나
- ☐ GPS 트래커와 충전기(쓴다면)
- ☐ 배변 봉투 넉넉히
- ☐ 밤 산책용 손전등·발광 목줄

이동

- ☐ 차량용 안전 하네스 또는 고정한 이동장
- ☐ 대중교통·항공용 이동장(크기·무게 확인)
- ☐ 이동장 바닥 배변 패드
- ☐ 시트 커버나 큰 수건
- ☐ 차 안에서 씹을 익숙한 장난감

먹이와 물

- ☐ 평소 사료 + 이틀 치 여분
- ☐ 간식
- ☐ 첫날 마실 집 물
- ☐ 접이식 그릇 또는 휴대용 물병
- ☐ 느리게 먹는 그릇·핥는 매트(쓴다면)

잠자리와 날씨

- ☐ 방석 또는 자가발열 매트
- ☐ 쿨매트·해먹 침대(여름)
- ☐ 옷, 발 보호용품(겨울)
- ☐ 구명조끼(물놀이)
- ☐ 수건 여러 장

건강

- ☐ 매일 먹는 약
- ☐ 외부·심장사상충 예방약
- ☐ 반려동물 구급 키트
- ☐ 진드기 제거기 또는 핀셋
- ☐ 발 닦는 물티슈
- ☐ 숙소 바닥용 배변 패드

인쇄해서 쓰세요

체형·장비 기록지

몇 달마다 부드러운 줄자로 재서 적어 두세요. 하네스, 옷, 구명조끼, 이동장을 새로 살 때 꺼내 보면 돼요.

우리 아이 이름

견종 / 믹스

동물등록번호

등록 방식(내장형·외장형)

몸 치수

날짜	몸무게	목둘레	가슴둘레(앞다리 뒤)	등 길이(목~꼬리 시작)

쓰고 있는 장비

장비	사이즈	구입일	마지막 점검	메모(닳은 곳, 교체 시기)
차량용 하네스 / 이동장				
이동장 무게 (빈 상태)				강아지 + 이동장 = _____ kg
산책용 하네스				
목줄과 인식표				적힌 번호 확인:
구명조끼				
옷				
GPS 트래커 (요금제 갱신일)				

인쇄해서 쓰세요 · 가방이나 차 안에 넣어 두기

여행 비상 카드

떠나기 전에 채워 두세요. 묵는 곳마다 가까운 24시 동물병원을 하나씩 적어 두면, 밤에 일이 생겨도 검색하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요.

이름, 나이, 몸무게

동물등록번호

먹는 약과 용량

수의사에게 알릴 질환·알레르기

다니는 동물병원 (이름, 전화)

연락이 닿는 비상 연락처

여행 경로의 24시 동물병원

묵는 곳 / 지역	동물병원	전화	24시간?
			☐
			☐
			☐
			☐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animal.go.kr(분실 신고, 보호센터 공고 확인) · 그 지역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이럴 때는 바로 병원에 가세요

- 열사병 징후: 거친 헐떡임, 붉거나 창백한 잇몸, 비틀거림
- 배가 부풀고 헛구역질만 반복할 때
- 쓰러짐, 경련, 숨쉬기 힘들어할 때
- 물놀이 뒤 구토, 침 흘림, 기운 없음
- 5분 넘게 눌러도 멈추지 않는 출혈
- 중독이 의심될 때(부동액, 자일리톨, 초콜릿, 사람 약)

참고 자료

이 가이드의 바탕이 된 자료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규정과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 가이드와 공식 안내가 다르면 공식 안내를 따르세요.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동물을 안고 운전 금지)과 범칙금 안내 — 정책브리핑·도로교통공단
- 동물보호법: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 외출 시 인식표·2m 이내 목줄, 분실 신고, 유실·유기동물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 장거리 이동 시 2시간마다 휴식 권고, 고속도로 휴게소 반려견 놀이터 현황(2025년 6월 기준 20곳)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도로공사(2025년 10월 보도)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기준(2026년 3월 1일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와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 탐방 시범 운영(북한산·계룡산·가야산, 2026년 말까지) — 국립공원공단, 2026년 10월 보도
- 반려 여행 친화시설 가이드라인(2025년 10월) — 한국관광공사
- 수출 반려동물 검역과 검역증명서 발급 —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 운영사 공개 안내

코레일·SRT 반려동물 동반 승차 안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안내,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각 항공사 반려동물 운송 안내,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반려동물 동반여행 대중교통 이용 방법'. 항공사 기준은 2026년 8월 공개 자료를 함께 대조했어요.

해외 참고 자료

미국수의사회(AVMA): 차 안 온도 상승과 더위 안전 · 미국켄넬클럽(AKC): 차량 안전, 구명조끼와 물놀이, 온열 침대, 열사병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해 녹조와 반려동물

> **멍냥뉴스 동네방네를 소개해요**
>
> 멍냥뉴스 동네방네(dogdo209.com)는 반려가족에게 필요한 공공기관 소식, 지원금·혜택, 법·제도 변화, 안전 경보와 지역 행사를 보호자 눈높이로 풀어 전해요. 저희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이 가이드에는 특정 브랜드나 업체가 나오지 않아요.

© 2026 멍냥뉴스 동네방네 · dogdo209.com. 구독자 개인 용도로 자유롭게 인쇄할 수 있으며, 무단 전재와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이 전자책은 일반 정보이며 수의사의 진단·치료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